

[38~42] (가)는 학생이 심리학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이고, (나)는 인터뷰 이후 학생이 작성한 소감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장한 말투로) 무척 떨리네요.

교수 : ㉠ 반갑습니다. 콜 포비아(Call Phobia)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학생 : 콜 포비아는 '전화'를 뜻하는 '콜(Call)'과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의 합성어로, 전화 통화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하던데요,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수 : 콜 포비아를 겪는 사람들은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회적 상황을 꺼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혹시나 자신이 말실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통화를 기피하고 대신 메신저 앱이나 문자로 [A]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지요. 또한 이들은 통화 중에 발생하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학생 :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콜 포비아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다는 통계를 접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화와 관련된 나쁜 기억이 축적되었기 때문일까요?

교수 :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그보다 주된 이유는 생활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짜장면을 시키더라도 직접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주문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끼리도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또 메신저는 통화에 비해 비교적 생각할 시간이 많은데,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통화를 어색해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학생 : (정리한 자료를 뒤적이며) 아! 얼마 전 콜 포비아의 급증을 현상학적으로 설명한 논문에서도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아요!

교수 : ㉡ 설마 '콜 포비아의 급증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읽어봤나요? 고등학생이 읽기 어려웠을 텐데 대단하네요.

학생 : ㉢ 감사합니다. 내용을 다 이해한 건 아니라 부끄럽네요.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수 ◇◇씨가 어느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콜 포비아로 병원을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그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나요?

교수 : 국내외 학계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콜 포비아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씨와 같은 사례는 보기 드물지요. 심중팔구는 가벼운 증상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곤 합니다. [C]

학생 : ㉣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 친구들을 보더라도 콜 포비아 증상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교수 :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콜 포비아 증상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학생 : ㉤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교수 : 네, 맞아요. 콜 포비아는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요, 지속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과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콜 포비아 극복을 돕는 전화 기술 컨설팅 업체까지 등장했어요. [D]

학생 : 컨설팅 업체라니 놀랍네요. 교수님 유튜브 채널에서 콜 포비아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전에 전화 통화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도움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교수 : 맞아요. '나도 콜 포비아? 이렇게 극복하자!'라는 영상을 봤군요? 정말 준비를 많이 했나 보네요.

학생 :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 : 미리 전화 통화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이때 혼자서 연습해 보고도 호전되지 않으면 가족, 친한 친구 등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E] 요청하여 함께 연습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포감이 심해서 신체 증상으로까지 나타났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학생 :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사회 선생님께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인터뷰하는 수행 평가를 내 주셨다. 그래서 좋아하던 가수가 콜 포비아(Call Phobia)로 병원에 방문하였다는 이야기를 접한 후로 이에 대해 호기심이 있던 나는, 심리학 교수님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교수님을 찾아뵙기 전에 콜 포비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탐색해 보기로 했다. 우선 콜 포비아의 어원과 개념이 궁금하여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찾아 스크랩했다. 그리고 교수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콜 포비아 증상과 극복 방법을 소개한 '나도 콜 포비아? 이렇게 극복하자!'라는 강연 영상을 시청했다. 다음 날에는 콜 포비아의 연간 증가세와 관련한 국내외 학계의 통계가 궁금해 도서관에 가서 관련 보고서를 찾아 읽어 보았다. 집에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던 중 콜 포비아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다음 날에 학회에 메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콜 포비아의 급증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라는 학회지 논문을 받을 수 있었다.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교수님과 인터뷰를 할 때에는 긴장을 많이 했다. 그래서인지 준비했던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아 아쉽게도 인터뷰를 일찍 마쳐야 했다. 친구들에게 인터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하나같이 예상 질문지를 미리 만들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번 인터뷰는 예상 질문지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 계기가 되었다.

38.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이 가질 부담감을 완화해 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 ② ㉡: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정보 파악 능력에 대해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며 상대방의 칭찬에 대해 겸양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 자신의 주변 상황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설명에 대한 공감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